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하상응 (서강대학교)

- 정치 양극화 현상은 '정치인(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념 양극화'와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 및 정서 양극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는 정파적 배열이라는 개념과 구분된다. 이념 양극화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이 줄어드는 동시에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 지지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정파적 배열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의 변화 없이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 지지가 높아지는 경우를 지칭한다.
- 자료 분석 결과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 양극화보다는 정파적 배열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각각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대표한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이념 양극화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 다만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정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흔적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정당 지지자는 진보정당을, 진보정당 지지자는 보수정당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들을 공신력 있는 설문 조사에 꾸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선거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비호감 선거'라는 표현이 빈번히 사용된다. 박빙의 승부를 벌인 양대 정당 후보들의 장점이 전혀 부각되지 않은 선거

였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유권자는 한 후보를 다른 후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투표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학자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이러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양극화(polarization)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경험적 근거가 제시된 경우는 드물다. 양극화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과거에는 두 집단의 이념 성향이 유사했는데, 지금은 이념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확인되어야 이념 양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정도로 두 집단의 이념이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양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지 정당에 따라 이념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여 이념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 정도를 확인한다.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 상대방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여 정서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정도도 확인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이다. 이 조사는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에 의거해 표본을 추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의 조사를 시행한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14년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2020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진행)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 개념 정의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양극화는 이념 양극화와 정서 양극화로 나뉜다. 이념 양극화는 보수적인 성향을 띤 집단이 진보적인 성향을 띤 집단으로부터 점점 이념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보수적인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보수적이 되고, 진보적인 집단은 더 진보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가 미국 연방의회이다.

지난 40여 년 간 미국 연방의원들의 법안 표결 행태를 보면, 과거와 달리 최근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이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이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 차원에서 확인되는 이념 양극화가 유권자 차원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보수적인 유권자 집단이 과거보다

더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 집단이 과거보다 더 진보적이라면 유권자 차원에서도 이념 양극화가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 집단이 과거보다 보수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적인 유권자 집단이 예전보다 진보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념 양극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는 보수 혹은 진보 유권자가 각자 자신의 이념 성향에 어울리는 정당을 찾아가는 경향성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파적 배열(partisan sorting)이라고 부른다.

〈표 XI-2〉 가상의 시나리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

	진보정당 지지자	무당파	보수정당 지지자
과거	진보(50) 중도(25) 보수(25)	중도(50)	보수(50) 중도(25) 진보(25)
현재	진보 (125)		보수 (125)

유권자 차원에서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표 XI-2〉와 〈표 XI-3〉에 제시하였다. 〈표 XI-2〉는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총 250명의 유권자를 상정하고 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과거와 현재)에서 이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지(무당파)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중



도 입장을 가진 50명의 유권자가 무당파에 속했고, 진보정당 지지자 총 100명 중 50명이 이념적으로 진보, 25명이 중도, 25명이 보수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점을 바꾸어 현재 상황을 보면, 무당파에 속하는 유권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 지지 정당이 결정되어 125명의 보수 성향 유권자가 보수정당을, 또 다른 125명의 진보 성향 유권자가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과거에 비해 중도 성향의 유권자 및 무당파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XI-3〉에 제시된 정파적 배열의 시나리오에서도 과거의 상황은 〈표 XI-2〉의 상황과 동일하다. 하지만 정파적 배열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도 중도 성향의 무당파 50명, 진보 정당 지지자 25명, 보수정당 지지자 25명이 있었고, 현재에도 그 수에는 변화가 없다. 유일한 차이는 과거에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25명의 보수 성향 유권자와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25명의 진보 성향 유권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각각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변했는지 여부에 의해

확인된다. 과거에 비해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줄면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면 이념 양극화, 중도 성향의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줄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면 정파적 배열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표 XI-3〉 가상의 시나리오: 유권자 차원의 정파적 배열

	진보정당 지지자	무당파	보수정당 지지자
과거	진보(50) 중도(25) 보수(25)	중도(50)	보수(50) 중도(25) 진보(25)
현재	진보(75) 중도(25)	중도(50)	보수(75) 중도(25)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양극화 해결 전략 구축 작업과 관련이 있다. 만약 유권자가 〈표 XI-2〉와 같은 이념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방 진영 유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짜야 효과적인 선거 운동 및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반면 유권자가 〈표 XI-3〉과 같은 정파적 배열 경향을 띤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국 운영이 가능하다. 이 두 전략의 차이는 상당하다.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양극화 되었는지 아니면 정파적 배열 경향성이 강해졌는지는 미국에서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치인 차원



말고 유권자 차원에서는 이념 양극화와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인 정서 양극화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서 양극화란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을,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지금 더 큰 현상을 의미한다. 이념 양극화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서 양극화는 현안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진영에 대한 비호감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유권자 수준의 정서 양극화는 꾸준히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념 양극화와 정서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양극화라는 개념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의미를 갖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념 양극화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안 표결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다. 미국처럼 양당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점 역시 국회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를 파악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혹은 정파적 배열)와 정서 양극화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역시 풍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시계열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서베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해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의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유권자의 이념 양극화

[그림 XI-11]은 자가보고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 간의 관계를 통해 한국 유권자의 이념 양극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지지 정당 기준으로 유권자 집단을 셋으로 나누고(무당파, 진보정당 지지자, 보수정당 지지자), 각 집단의 이념 성향을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보았다.¹⁾ 무당파의 경우 2003년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 역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추세는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그러한 추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자료에서는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이 무려 69.5%에 이른다.

한편 진보정당 지지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스스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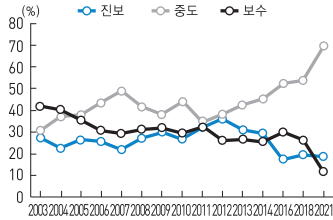
1) 여기서 진보정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들, 보수정당은 2022년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한정한다. 제 3정당 지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지 정당 변수는 다음의 두 설문 문항에 대한 답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우선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당입니까?"라는 질문을 재차 물었다. 지지 정당을 묻는 첫 번째 질문은 2003년 이후 매년 던졌으나, 선호 정당을 묻는 후속 질문은 2010, 2011, 2012년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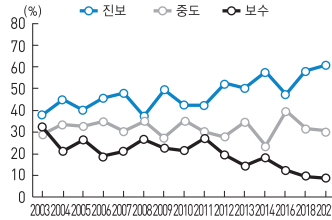


[그림 XI-11] 지지 정당별 정치적 이념성향,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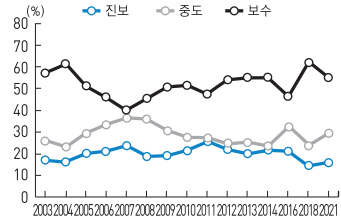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진보적’에서부터 ‘매우 보수적’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진보’는 매우 진보적과 다소 진보적을 합한 응답틀이고, ‘보수’는 매우 보수적과 다소 보수적을 합한 응답틀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진보정당 지지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진보정당 지지자의 비율은 꾸준히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비율이 줄긴 했으나 이후 그 비율은 대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반면 스스로 중도 혹은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비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종합해 보자면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 양극화 보다는 정파적 배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무당파 중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진보정당 지지자와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

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인 비율과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현상이 확인되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 및 무당파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면 이념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파적 배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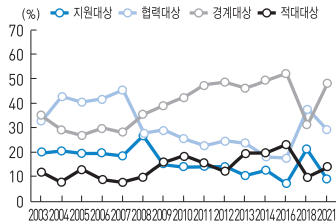
한국 유권자의 이념 성향은 경제 영역, 사회문화 영역, 대북정책 영역 등으로 나뉘는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띠기 때문에, 일차원적인 자가보고 이념 성향을 활용한 분석에 추가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와 지지 정당 간의 관계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와 지지 정당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²⁾ [그림 XI-12]는 지지 정당

2) 정치 이념의 사회문화 차원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문화 차원을 다루는 추가적인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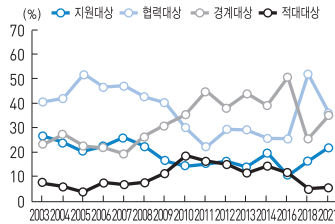


[그림 XI-12] 지지 정당별 북한에 대한 태도,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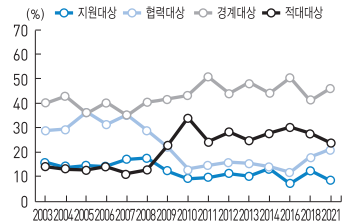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별 북한에 대한 태도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준다. 무당파의 경우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다가 2018년 잠시 늘어나고 2021년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대북 유화정책이 2007년 이명박 정부부터 폐기되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잠시 남북관계가 개선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응답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을 경제대상 혹은 적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무당파에서 확인되는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도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2009년부터 급속히 줄어들다가 2018년 잠시 반등세를 보이고 2021년 다시 낮아진다. 대신 북한을 경제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의 변화는 이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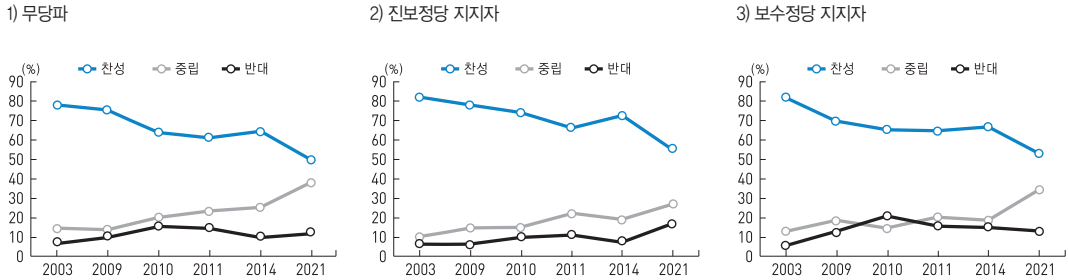
반되는 패턴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독특하다. 북한을 경제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꾸준히 높고,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07년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대신 북한을 적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34.2%까지 높아졌고, 현재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현안에 기반한 이념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는 주장하기 어렵다. 진보정당 지지자의 태도 변화가 무당파의 태도 변화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림 XI-13]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경제 영역에서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고, 그것이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확인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무당파의 경우 2003년 이후 정부 주도의 소



[그림 XI-13] 지지 정당별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 2003-2021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동의'에서부터 '매우 반대'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찬성은 '매우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이고, '중립'은 '동의도 반대도 아님' 응답률이며, 반대는 '매우 반대'와 '약간 반대'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늘고 있다. 노골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에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사회 통념과 달리 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보수정당 지지자의 태도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2021년 현재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정당 지지자의 비율이 55.7%로, 보수정당 지지자의 비율인 52.9%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반대하는 비율 역시 보수정당 지지 집단(12.7%)보다 진보정당 지지 집단(16.8%)에게서 높게 나타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경제 영역에서의 정치 이념을 파악하는 도구임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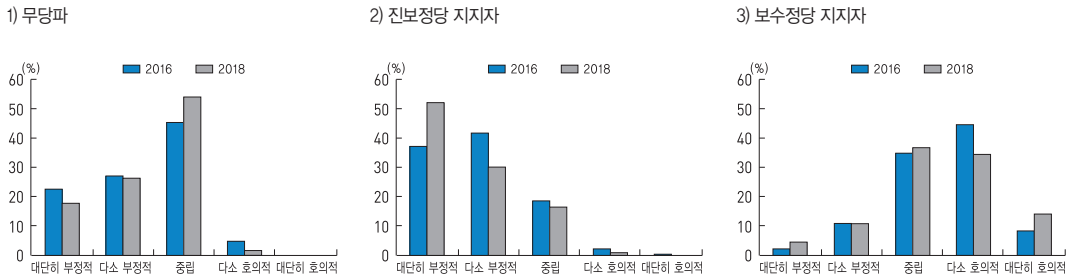
한다면 과거에 비해 현재, 유권자 차원에서 이념 양극화가 확인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

다음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를 살펴본다. 우선 [그림 XI-14]는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이 무당파, 진보정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정당 지지자 사이에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무당파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에 큰 변화가 없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보수정당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은 줄었지만, 동시에 '다소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줄어들었다. 대신 2016년 대비 2018년에 보수정당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중립)인 비율은 크게 늘었다.



[그림 XI-14] 지지 정당별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 2016, 2018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0℃ 대단히 부정적', '30℃ 어느정도 부정적', '50℃ 호의적(지도 부정적(지도 없음)', '70℃ 어느정도 호의적', '100℃ 대단히 호의적'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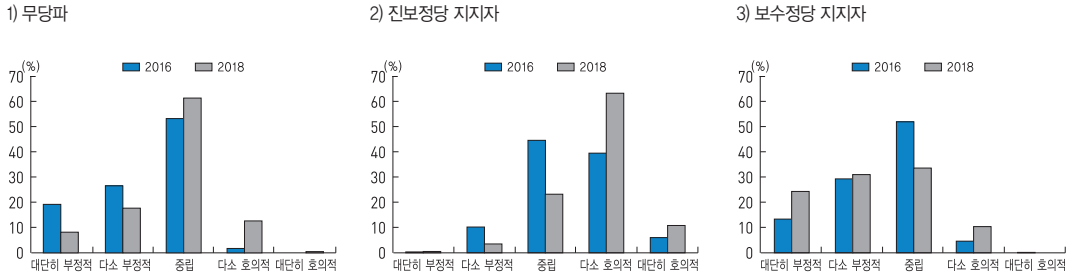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그러나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는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 변화가 확인된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감정은 크게 늘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고, 2018년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보다 2018년 조사 당시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 2년 사이 정서적 양극화가 나타났음을 시사해 준다.

보수정당 지지자의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 변화는 진보정당 지지자보다는 무당파에 가깝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보수정당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늘었지만, 동시에 '대단히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도 늘었다. 결국 보수정당을 대상으로 놓았을 때 정서적 양극화 현상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 확인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림 XI-15]는 진보정당에 대한 2016년과 2018년 사이의 감정 변화를 보여준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진보정당에 대한 감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진보정당을 '대단히 부정적' 혹은 '다소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2018년에 줄었고, '다소 호의적' 혹은 '대단히 호의적'으로 느끼는 비율은 늘었다. 유사한 패턴이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중립'적 감정은 크게 줄었고, '다소 호의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보수정당 지지자가 진보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는 조금 다르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진보정당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정당 지지자 중 진보정당을 '다소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2016년보다 2018년에 조금 높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보수정당 지지자에게서 정서 양극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림 XI-15] 지지 정당별 진보정당에 대한 감정, 2016, 2018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0°C 대단히 부정적', '30°C 어느정도 부정적', '50°C 호의적(지도 부정적(지도 없음)', '70°C 어느정도 호의적', '100°C 대단히 호의적'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그림 XI-14]와 [그림 XI-15]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2016년과 2018년이라는 2년의 기간이 짧은 하지만 지지 정당이 있는 한국 유권자가 정서적으로 양극화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보수정당 지지자는 진보정당을, 진보정당 지지자는 보수정당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맺음말

최근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치인(국회의원) 차원과 유권자 차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 차원에서는 의회에서의 표결 행태를 통해 진보정당 소속 의원과 보수정당 소속 의원 간 이념 양극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 표결이라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권

자의 경우에는 이념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의 비율 변화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변화를 통해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을 구분한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이 줄어드는 동시에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 지지가 높아질 때를 말한다. 반면 정파적 배열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의 변화 없이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 지지가 높아질 때를 말한다. 이와 별도로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는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 변화를 의미하는 정서적 양극화로도 파악 가능하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성을 담보한 대면조사인 「한국종합사회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 양극화 보



다는 정파적 배열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당파 중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진보정당 지지자와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인 비율과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각각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대표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이념 양극화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정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흔적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정당 지지자는 진보정당을, 진보정당 지지자는 보수정당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2022년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빈약한 인상비평 차원의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예전에도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했는데, 1인 미디어와 정파성

을 띤 미디어(partisan media)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유독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 지금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명확히 검증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치명적이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항들을 공신력 있는 설문 조사에 꾸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로 구분하면 양극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다. 만약 유권자가 이념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방 진영 유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반면 유권자가 정파적 배열 경향을 띤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정파적 배열의 경우, 이념 양극화 상황과 달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